

우리 마누라는 누구인가?: '우리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 교수의 제안을 비판함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공동체에서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화자의 아내를 가리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대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강진호가 그 대안으로 제안한 이론을 논박하는 것이다. 한국어 표현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에 대한 탐구는 무엇보다 그것의 기술적 내용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를 위해 필자는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를 도입할 것이다. 동의어 논제는 '우리 마누라'와 '우리의 마누라'가 동의어라는 논제이고, 공동체 논제는 'x가 우리의 마누라이다'가 참이기 위해서 x를 공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논제이다. 이 때 강진호는 정대현에 대한 그의 비판 논문에서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데, 강진호의 제안은 동의어 논제를 수용하는 반면 공동체 논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러한 제안과 함께, 강진호는 한국어 사용자들이 '우리 마누라'를 사용하는 표준적 맥락에서 그것을 지칭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정대현의 입장을 반대하며 '우리 마누라'가 사용되는 표준적 맥락에서 그것이 속성적으로 사용된다고 역설한다. '우리 마누라'에 대한 이러한 강진호의 견해는 동의어 논제는 거짓이지만 공동체 논제는 참이고 아울러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이 지칭적 용법이라고 보는 필자의 견해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 마누라'에 관한 강진호의 이론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논점을 비판할 것이다.

1. '우리 마누라'에 대한 정대현의 견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부남들 사이에서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은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기 위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된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그 표현에 당혹스러움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왜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인가? 필자는 이 당혹스러움이 한국어 표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미로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심오하며 또 난해한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마누라'의 의미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안성맞춤이다.

마침 국내 언어철학계에서 정대현과 강진호가 '우리 마누라'의 의미에 관한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논의는 국내외 언어학계의 소유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두 저자의 논의가, 비록 흥미롭고 교훈적인 부분이 많지만,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난해한 언어학적 철학적 퍼즐을 풀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필자는 그러한 퍼즐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국어학계, 언어학계, 그리고 철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아우르는 통합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본 논문이 그러한 연구를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마누라'는 어떤 개체, 즉 화자의 부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칭어(singular terms)이다. 그것은 단칭어 중에서도 이름(names)이나 지표어(indexicals)와 구분되는 한정기술구(definite descriptions)인데, 지난 세기 중반 도널렌(Donnellan 1966)은 맥락에 따라 한정기술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용법, 즉 속성적(attributive) 용법과 지칭적(referential) 용법을 갖는다고 제안하였다. 한정 기술구 'The D'가 속성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은 <D>라는 기술적 내용을 만족하는 임의의 대상에 관한 사고를 표현한다. 이에 따라 'The D'의 속성적 사용을 위하여 화자는 그 사용 이전에 그가 'The D'를 사용하여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과 어떤 지각적, 인과적 혹은 역사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한정 기술구가 지칭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자는 자신과 지각적, 인과적, 혹은 역사적 관계를 갖는 대상 x를 염두에 두고 청자의 주의를 그 대상으로 향하게 할 의도로 'The D'를 사용한다. 지칭적 목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화자 개인의 의도이고, 기술구 'The D'의 내용 자체는 다소 부차적이다. 이는 x가 기술적 내용 <D>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화자가 그 기술구를 지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x를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부남들이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기 위하여 '우리 마누라'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대현은 도널렌의 속성적/지칭적 사용의 구분에 호소한다. 유부남인 김철수가, 자신의 부인이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문장을 발화한다고 가정하자.

1. 우리 마누라가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어.

이 때 한국어 사용자들은 김철수의 발화가 참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 지점에서 정대현은 (1)에서 '우리 마누라'가 지칭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러한 일반인들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철수는 (1)을 발화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즉 김철수의 부인에게 청자의 주의를 향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 마누라'를 사용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의 발화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차지하더라도, 김철수의 부인이 발화시점에 밥상을 차리고 있다는 참된 믿음을 청자가 갖도록 유도함에 있어서 성공한다. 이렇듯 한국어 사용자들이 '우리 마누라'를 사용할 때 화자가 그 사용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특정한 개체를 담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 마누라'를 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한국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정대현의 입장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누라'가 표준적 맥락에서 지칭적으로 사용된다는 정대현의 입장이 옳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대현이 내놓는 논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이 지칭적 용법이라는 입론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대현이 제시하는 핵심 논거는 다음 아니라 그것의 표준적 용법을 속성적 용법으로 간주하게 되면 납득 불가한 귀결을 얻게 된다는 관찰이다. 정대현(p. 78)에 따르면, (1)에서 '우리 마누라'가 한정기술구의 속성적 용법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때 (1)은 언제나 진리치 결핍이거나 혹은 거짓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의 속성적 용법 하에서 "'우리 마누라'라는 어귀의 속성조건을 만족하는 마누라 공유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김철수가 (1)를 통하여 참된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일반인들의 관점과 정면으로 상충하고, 이에 따라 정대현은 (1)에서 '우리 마누라'가 속성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관점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 마누라'의 지칭적 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대현의 추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논제를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정대현은 'x가 우리 마누라이다'가 참이기 위해서 x를 공

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진술한다. 이 진술을 정대현의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정대현은 '우리 마누라'가 일인칭 복수 소유격을 포함하는 소유격 구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즉, 그것이 서술하는 속성이 <우리의 마누라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x가 우리의 마누라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x를 공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대현은 다음의 두 논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의어 논제. '우리 마누라'와 '우리의 마누라'는 동의어이다.

공동체 논제. 'x가 우리의 마누라이다'는 오직 x를 공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가 존재할 때에만 참이다.

여기서 공동체 논제는 소유격 구문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동의어 논제는 '우리 마누라'가 '우리의 마누라'와 동일한 기술적 내용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 마누라'가 일부일처제의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현상이 그것을 속성적으로 해석했을 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정대현의 논점은 분명 옳다. 하지만, 필자는 (최성호 2016)에서 일단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를 참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어 화자들이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기 위하여 '우리 마누라'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맥락에서 그것을 지칭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정대현의 이론 역시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논변하였다.¹ 한정기술구의 지칭적 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는 '우리 마누라'의 속성적 용법뿐만 아니라 지칭적 용법 역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어 화자가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고, 그에 따라서 (1)과 같은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화자의 부인에 대한 믿음을 담화를 통해 전달하는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필자는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를 수용할 때 그것을 '우리 마누라'의 속성적 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마누라'의 지칭적 용법으

¹ 이와 관련하여, 강진호 역시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인 용법이 지칭적이라는 정대현의 입론을 비판하는데, 필자는 (최성호 2016)에서 정대현의 입론에 대한 강진호의 비판이 합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 두 논제 중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언뜻 보면 그 두 논제는 각각 매우 자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정대현 자신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공동체 논제는 참이지만 동의어 논제는 거짓이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대현이 '우리 마누라'의 속성적 용법을 거부하기 위하여 제시한 논변은 부당하고 나아가 표준적 맥락에서 그것이 지칭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그의 입론은 기존에 그가 제시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정식화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강진호는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대현과 상당히 다른 노선을 취한다. 그는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를 명시적으로 형식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진 않지만, 그의 텍스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하에서 그는 동의어 논제를 수용하지만 공동체 논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강진호는 'x가 우리의 마누라이다'가 어떤 조건 하에서 참이 되는지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고, 그에 기반하여, 정대현의 주장과 달리, 한국어 화자가 '우리 마누라'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인을 가리키는 표준적 맥락에서 '우리 마누라'가 속성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동의어 논제가 거짓이지만 공동체 논제가 참이고 나아가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은 지칭적 용법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우리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견해는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서로 정반대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볼 수 있다.

필자의 견해에서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론은 정대현과 강진호가 공히 수용하는 동의어 논제를 부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의어 논제를 참으로 수용하며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을 설명하려는 정대현과 강진호의 시도는 어쩌면 실패가 예정된 시도일 수밖에 없다. 정대현의 견해가 갖는 문제점은 (최성호 2016)에서 충분히 논증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이에 본 논문은 강진호를 비판의 주된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하에서 필자는 먼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 자신의 분석 하에서 한국어에서 '우리 마누라'가 사용되는 표준적 맥락에서 그것이 속성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강진호의 입론을 논박할 것이다. 그에 이어서 필자는 강진호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일련을 논거를 논파함으로써 그의 이론이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밝힐 것이다.

2. '우리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견해와 그것의 속성적 용법

먼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의 제안을 살펴보자. '우리 마누라'가 그것이 사용되는 표준적 맥락에서 속성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강진호는 필자나 정대현과 달리 김철수가 (1)을 발화하면, 그것은, 어떤 개체 x 가 '우리 마누라'에 대응하는 기술적 내용을 만족하는 한에 있어서, 그 x 가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간주한다. 이 때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강진호(p. 162-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함으로써 '우리 마누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속성을 서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말 '마누라'는 이미 지표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마치 화자가 인칭대명사 '나'를 발화할 때마다 규약적으로 '나'가 그 화자를 가리키듯이, 화자에 의해 발화될 때마다 규약적으로 그 화자의 아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지표적 요소를 상쇄시키지 않는 한 '우리 마누라'의 '마누라'는 여전히 <화자의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마누라' 앞에 '우리'를 덧붙임으로써, 표현 '우리 마누라'는 화자의 아내가 화자 자신이 속해있는 가족의 한 구성원임을 알려준다. '마누라'가 지칭하는 대상, 즉 화자의 아내가, 또한 '우리'가 가리키는 집단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진호의 논지는 '우리 마누라'에서 '마누라'는 화자의 마누라를 규약적으로 가리키고, 그에 더해 '우리'는 '화자의 마누라가 화자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의 한 구성원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근거에서 강진호는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이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강진호의 제안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가 동의어 논제나 공동체 논제를 수용하는지 여부이다. 강진호는 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어 논제를 수용하고 공동체 논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강진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독법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강진호는 그의 논문에서 '우리 마누라'의 영어 번역

으로 'Our wife'를 제시하고, 또한 동시에 정대현의 입장이 오류인 것이 그가 '우리 마누라'를 분석하면서 소유격 관계가 반드시 소유 관계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르카나티를 인용하며, 강진호(p. 161)는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my'나 'his'와 같은 이른바 '소유격'이 포함된 표현이 늘 소유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마누라'가 복수 일인칭 대명사 '우리'와 보통 명사 '마누라'를 포함한 소유격 구문이라는 것을 강진호가 수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이는 그가 '우리 마누라'가 '우리의 마누라'의 준말임, 즉 동의어 논제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우리(의) 마누라'가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를 뜻한다는 강진호의 분석에서 공동체 논제가 거짓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어떤 개체 x 가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이기 위해서 x 를 공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진호의 분석에서 '우리(의) 마누라'가 속성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마누라 공유 공동체는 필요치 않다. 아마도 강진호는 이를 자신의 분석이 갖는 중요한 장점으로 간주할 듯하다. 왜냐하면, 강진호의 분석을 동의어 논제와 결합함으로써 어떻게 일부일체제가 비교적 엄격한 혼인제도로 정착된 한국어 공동체에서 화자가 '우리 마누라'를 속성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부인을 가리킬 수 있는지를, 적어도 일견,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강진호가 제안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동의어 논제는 참이지만 공동체 논제가 거짓이라는 것이고, 정대현이 공동체 논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그가 '우리 마누라'의 속성적 용법을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강진호는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의 입장을 이와 같이 정리할 때, 필자는 그에 반대한다. 이하의 논의에서 강진호의 분석은 강진호가 그것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문제들보다 한층 심각한 문제들을 무수히 양산한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강진호는,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전술한 견해와 함께,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우리 마누라'가 사용되는 표준적 맥락에서 그것이 속성적으로 사용된다는 입론을 내세운다 - 편의상 이 입론을 '속성 입론'이라고 부르자. 이와 관련하여 강진호(p. 15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말 표현 '우리 마누라'가 지칭하고 있는 지시체인 화자의 아내에 이 표현의 의미 지

시체인가, 아니면 화자 지시체인가? 우리의 직관은 명백히 전자의 편을 든다. , , , 한정기술구 '우리 마누라'는 어떤 특정 맥락에서 화자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 화자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맥락과 상관없이 규약적으로 화자의 아내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크립키의 논의를 따를 경우, 정 교수의 제안과 달리 더 설득력 있는 가설은 한정기술구 '우리 마누라'가 속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설일 것이다.

여기서 강진호는 우리의 직관이 명백히 속성 입론을 지지한다고 강변하지만, 필자는 강진호의 직관을 공유하지 않는다. 강진호(p. 163)는 자신의 직관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런 필자를 설득할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논문의 말미에서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자신의 분석이 그것의 속성적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우리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견해 중에서 그것의 기술적 내용에 관한 부분을 논파하는 것은 다음 절의 주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절에서 강진호의 속성 입론을 논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논의를 위해, 김철수의 아내인 박지영이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철수가 (1)를 발화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1)에 나타나는 '우리 마누라'는 박지영을 지칭적으로 가리키는가 아니면 속성적으로 가리키는가? 분명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에서 박지영은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 즉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을 만족한다. 어떤 한정기술구가 x를 속성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는 x가 그 기술구의 기술적 내용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강진호의 분석에서 김철수가 (1)을 발화할 때 그가 '우리 마누라'를 속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강진호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신의 속성 입론이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필자는 달리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도넬렌(Donnellan 1966, p. 285)은 한정기술구의 속성적/지칭적 용법의 구분을 옹호하며 다음의 사례를 고려한다.

2.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은 제정신이 아니야.

(2)에 나타나는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한정기술구는 (2)가 발화되는 맥락에 따라서 속성적

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칭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가령, 김철수가 살해당한 현장에 막 도착한 경찰들이 잔혹한 현장을 보면서 (2)를 발화하는 경우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이 속성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경찰들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2)를 발화한 것이 아니라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임>이라는 기술적 내용을 만족하는 이는, 그가 누구든,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편, 김철수를 살인한 주요 용의자로 검거된 이영호가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광기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방청석의 한 화자가 (2)를 발화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때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은 김철수를 살해한 임의의 어떤 개체를 속성적으로 가리키기보다 이영호라는 특정인을 가리키기 위하여 지칭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찰은 설사 이영호가 경찰들의 의심과 달리 실제 김철수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2)는 이영호에 관한 화자의 믿음을 전달함에 있어 성공한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도널렌의 사례에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영호가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기술구를 만족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기술구가 대부분의 맥락에서 기술적으로 사용된다거나 혹은 그 기술구가 어떤 특정 맥락에서 기술적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실로부터 이영호를 가리키기 위하여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이 속성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따라 나온다. 하지만, 그 기술구가 속성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그것이 실제 속성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영호가 김철수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가정하에서 법정 방청석의 화자가 (2)를 발화하면서 '김철수를 살해한 범인'을 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설사 박지영이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라는 기술적 내용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장 강진호의 분석에서 '우리(의) 마누라'가 박지영을 속성적으로 가리킨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단지 강진호의 분석에서 '우리(의) 마누라'가 그렇게 속성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록 강진호의 분석이 '우리(의) 마누라'의 속성적 용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이 강진호의 속성 이론이 참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속성 이론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즉, (1)에 나타나는 '우리 마누라'가 박지영을 지칭적으로 가리키는가 아니면 속성적으로 가리키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

한 올바른 이론이 확립된 이후에나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강진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이 지칭적인지 아니면 속성적인지와 관련하여 우리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진척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이 미지로 남아 있는 현시점에도, 강진호의 주장과 달리, (1)에서 '우리 마누라'가 지칭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유력한 근거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1)을 발화하면서 김철수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자신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임의의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김철수가 (1)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어떤 특정인, 즉, 박지영이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김철수의 언술행위에서 '우리 마누라'는 일차적으로 청자의 관심을 박지영에게 향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논점은 김철수가 박지영을 가리킬 목적으로 '우리 마누라'가 아닌 다른 기술구, 예를 들어, '미진이 엄마'(김철수와 박지영 사이에 김미진이라는 딸이 있다고 가정하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층 명백해진다. 김철수는 왜 박지영을 가리킴에 있어서 '우리 마누라'가 아닌 다른 기술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까? 그것은 설혹 그가 다른 기술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구가 박지영을 화자-지시하는 한 자신이 전달하려고 의도한 메시지에 아무런 차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 김철수가 (1)을 발화하면서 '우리 마누라'를 속성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가정 하에서, (1)은 김철수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을 만족하는 어떤 임의의 대상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1)에서 '우리 마누라'를 '미진이 엄마'로 교

² 이 논점은 한정기술구가 지칭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포함한 문장이 화자의 대물민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카플란(Kaplan 1978)이나 애벗(Abbott 2010)의 제안에 의해서 지지된다. 이 제안에 따르면, 김철수가 (1)을 발화하며 '우리 마누라'를 지칭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김철수가 그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김철수의 대물민음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마누라'와 '미진이 엄마'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칭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1)에서 '우리 마누라'를 '미진이 엄마'로 교체하더라도 그것은 기존과 동일한 김철수의 대물민음을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체하게 되면 (1)을 통하여 김철수가 뜻하는 바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김철수가 대다수의 발화 맥락에서 '우리 마누라'와 '미진이 엄마'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³ 이런 고려로부터 필자는 (1)에서 '우리 마누라'가 박지영을 속성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칭적으로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이런 필자의 주장은 '우리 마누라'가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일반화될 수 있다.

이런 필자의 제안에 대하여 강진호는 그가 정대현에게 제기한 반론과 비슷한 반론을 필자에게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이 반론은 많은 한정기술구들이 일반적으로 맥락에 따라 속성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지칭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관찰에서 비롯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 마누라'가 한국어 사용자 사이에서 오직 지칭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고 제안한다면 그는 어떻게 대부분의 한정기술구는 속성적 용법과 지칭적 용법 모두 갖는데 반하여 '우리 마누라'는 오직 지칭적 용법만을 갖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 강진호(p. 157)의 반론의 요지이다. 하지만 필자(2016)는 다른 논문에서 강진호의 이러한 반론이 유효하지 않다고 논변한 바 있다. 정대현이나 필자의 견해에서 '우리 마누라'가 오직 지칭적 용법만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필자 자신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 왜 다른 대부분의 한정기술구와 달리 '우리 마누라'는 오직 지칭적 용법만을 갖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³ 도널렌 (1966, p. 285) 자신의 표현을 빌면 '속성적 사용의 경우 한정기술구가 본질적으로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는 그 한정기술구를 만족하는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무엇인가 주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칭적 사용의 경우 한정기술구를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로 주의를 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기술구 혹은 이름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속성적 사용에서 속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칭적 사용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first case the definite description might be said to occur essentially, for the speaker wishes to assert something about whatever or whoever fits that description; but in the referential use the definite description is merely one tool for doing a certain job-calling attention to a person or thing-and in general any other device for doing the same job, another description or a name, would do as well. In the attributive use, the attribute of being the so-and-so is all important, while it is not in the referential use.'

심도 있는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고, 이에 따라 강진호가 요구하는 종류의 설명은 피치 못하게 다음을 기약해야 할 듯하다. 그럼에도 필자는 그러한 설명의 부담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필자의 후속 연구가 결실을 맺을 때 그러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3. '우리(의) 마누라'와 '우리의 적'

앞 절에서 필자는 '우리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여러 입론들 중에서 속성 입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 절부터는 한층 중요한 강진호의 입론, 즉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이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라는 입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⁴ 전술한 바와 같이, 강진호는 '우리(의) 마누라'에서 '마누라'가 화자의 마누라를 규약적으로 가리키고, '우리(의)'는 화자의 마누라가 화자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긍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강진호(p. 162) 자신도 인정하듯이, 이러한 강진호의 입론은 '우리(의)' 다음에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구가 오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의 직관적 호소력을 갖는다. 가령, '우리의 태양(혹은 우리의 연구 프로젝트)'을 사용하는 화자가 태양(연구 프로젝트)이 '우리'로 표현되는, 화자를 포함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뜻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반직관적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강진호는 '우리(의)'라는 소유격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가 사람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대통령'에서 나타나는 '우리의'와 '우리의 태양'에서 나타나는 '우리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이는 그럴듯하지 않다. 한국어 화자의 귀에 '우리의 대통령'에서의 '우리의'와 '우리의 정부'에서의 '우리의'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비록 전자에서 '대통령'은 사람을 지칭하고 후자에서 '정부'는 그렇지 않지만 말이다.

설사 '우리의' 다음에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구가 오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진호의 이론은 그것의 설득력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먼저 '우리 마누라'의

⁴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강진호는 '우리 마누라'와 '우리의 마누라'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동의어 논제를 수용한다. 이하에서는 논변을 위해 동의어 논제를 가정하고 강진호를 비판하기로 하자.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의 이론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담임선생님', '우리의 적'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은 '우리의 남편'나 '우리의 대통령'과 같은 표현들에는 순조롭게 확장될 수 있다. '우리의 남편'의 기술적 내용은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남편>이고 '우리의 대통령'의 기술적 내용은 <화자 국가의 구성원인 화자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겉보기에는, 강진호의 입장에 그리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⁵

하지만 강진호의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사례들 역시 존재한다. 어떤 학생 x 가 '우리의 담임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y 를 가리킨다고 가정해 보자. 강진호의 이론이 '우리의 담임 선생님'에도 적용된다면, x 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자신이 속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뜻할 것이다. 개체 y 가 그 기술구의 기술적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 와 y 를 함께 포함하는 어떤 공동체, 즉 학생과 담임 선생님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강진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담임 선생님'에서 '우리의'는 y 가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긍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 공동체에 대응하는, 대화 맥락에서 두드러진(contextually salient) 사회 집단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우리의 마누라'의 경우 화자의 가족이 그런 집단의 역할을 한다고 비교적 명확히 말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의 담임 선생님'의 경우 화자 x 와 지시 대상 y 를 모두 포함하는, 맥락적으로 자연스러운 집단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이러한 필자의 불평에 대하여 강진호가 x 와 y 가 함께,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행정직원으로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G 가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즉 x 가 '우리의 담임선생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y 를 가리킨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는 y 가 G 의 구성원임을 긍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진호의 답변은 그 나름의 이론적 일관성은 아닐지 모르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의 담임 선생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한국어 화자들에게 그 표현에서 '우리의'가 가리키는 공동체는 의문의 여지 없이 그 선생님의 제자들, 즉 y 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담임 선생님'의

⁵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기술적 내용을 분석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굳이 언급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y 와 사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들의 어떤 집단이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G , 즉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 명의 한국어 사용자로서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의 기술적 내용이 <화자가 속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화자의 담임선생님>이라는 분석이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필자의 논점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에서 한층 더 분명해진다. 강진호의 이론이 '우리의 적'에 참되게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의 기술적 내용은 <화자가 속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화자의 적>을 뜻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강진호에게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분명치 않다. 화자 x 가 '우리의 적'을 사용하여 y 를 가리킬 때, x 와 y 를 모두 포함하는 대화 맥락상 두드러진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적'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공동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y 와 적대관계를 갖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일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우리의 담임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의 적'의 기술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강진호가 언급해야 하는 공동체는 한국어 화자들이 실제의 담화 맥락에서 '우리'의 지시체로 간주하는 공동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의 적'의 기술적 내용이 <화자가 속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화자의 적>이라는 강진호의 분석이 한국어 사용자의 실제 언어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물론, 강진호 입장에서 필자의 이러한 불평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마누라'라는 표현의 기술적 내용이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라는 강진호의 분석을 그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에게로 일반화하지 않거나 혹은 일반화해도 그 분석에 부합하는 표현들에게로만(e.g.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학과장', '우리의 대통령' 등) 일반화하는 것이다. 강진호는 기본적으로 소유격 구문의 기술적 내용이 그 구문에 등장하는 명사 혹은 명사구에 따라서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그의 이론이 '우리의 N'의 형태를 갖는 다른 표현들로 - 설사 'N'이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보통 명사라 하더라도 -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입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필자는 여전히 불만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필자의

언어적 직관에서 '우리의 마누라', '우리의 담임선생님', '우리의 적' 등에서 '우리의'는 특별히 다른 것을 뜻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점에서 그들이 왜 달리 분석되어야 하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는 다음 절에서 언어학계의 기존 연구를 발판 삼아 그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고, 이는 강진호의 분석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맥락의 의미론적 역할

앞 절에서 필자는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을 '우리의 N'의 형식을 가진 다른 소유격 구문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절부터는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 그 자체만을 두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강진호가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이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라고 제안할 때 내세운 핵심 논거는 한국어 '마누라'는 이미 지표적 요소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관찰이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강진호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부남인 김철수가 '마누라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할 때, '마누라'는 비록 지표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발화 맥락에서 화자의 아내, 즉 김철수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그런 근거에서 강진호는 화자가 '우리의 마누라'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아내를 가리킬 수 있고, 아울러 그 구문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는 단지 수식적 기능, 즉 화자의 아내가 화자 가족의 구성원임을 확인해 주는 기능만 할 뿐이라는 입론으로 나아간다. 달리 말해 '우리의 마누라'에서 '우리의'는 '마누라'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 즉 '마누라'의 지시체를 화자의 마누라로 확정하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를 단지 보완하는 수식적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마누라'가 이미 화자를 가리키는 지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강진호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위에서 언급한 김철수의 진술에서처럼 '마누라'가 화자의 마누라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마누라'는 발화 맥락에 따라서 청자의 마누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제 삼자의 마누라를 가리킬

수도 있다.

- A. 요즘 들어 사는 것이 부쩍 힘들어.
- B. 왜? 요즘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좋아?
- A. 아니 그건 아니고.

B의 진술에서 '마누라'는 화자인 B의 마누라가 아니라 청자인 A의 마누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마누라'가 소유격 없이 사용될 때, 반드시 화자의 마누라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증한다. 뿐만 아니라 '마누라'가 대화 참여자 중의 한 사람의 부인을 늘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 C. 요즘 철수 표정이 좋지 않네.
- D. 음 요즘 마누라와 사이가 좋지 않대.

D의 진술에서 '마누라'는 화자인 D의 부인이 아니라 철수의 부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대화 맥락속에서 '마누라'는 화자의 마누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 청자의 마누라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대화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제 3자의 마누라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것은 영수의 엄마가 영수에게 '학교 빨리 가'라고 말할 때 '학교'는 청자의 학교를 가리키지만 영수가 자신의 엄마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학교'는 화자의 학교를 가리킨다는 사실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대화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는 대화 맥락을 배제할 때 그 지시대상이 확정되지 않는 불완전 기술구들- e.g., '마누라', '학교' -을 폭넓게 사용하는데, 그 경우 지시대상의 확정은 발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다.⁶ 이렇게 '마누라'의 사용

⁶ 불완전 기술구(incomplete description)는 언어철학자들 사이에서 남다른 관심을 받았는데, 그에 관한 논의는 스트로슨(Strawson 1950, pp. 14-5)이 러셀의 기술이론에 대한 하나의 반례로 불완전 기술구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불완전 기술구가, 특히 그것을 지칭적으로 사용할 때, 러셀의 기술이론에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제기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제기되었다(Donnellan 1968;

을 이해할 때, '우리말 '마누라'는 이미 지표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 . . , 화자에 의해 발화될 때 마다 규약적으로 그 화자의 아내를 가리킨다'는 강진호의 주장은 명백히 틀렸다. 강진호가 이 주장을 '우리 마누라'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지지하는 핵심적 논거로 삼는 만큼, 그 주장이 오류라는 사실은 강진호의 분석이 갖는 정당성을 상당 부분 훼손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대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에 의지하여 불완전 기술구를 지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기술구의 사용을 피하고 완전한 기술구를 사용함으로써 대화 맥락의 의미론적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내 마누라'나 '당신의 마누라'와 같이 대명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대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를 지표어인 '내'와 '당신'의 지시체 고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아니면, '철수의 마누라'와 같이 고유명사가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 '당신의', '철수의'와 같은 표현들은 '마누라'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발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를 일정 부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우리의 마누라'도 마찬가지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마도 연구자들이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서 '우리의'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론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게 성취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그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터인데, 필자는 그 중의 하나가 '우리의 마누라'에서 '우리의'는 '마누라'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발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를 보완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일부 대체한다는 사실이다. 앞 문단에서 우리는 '내 마누라', '당신의 마누라', '철수의 마누라'에서 '내', '당신의', '철수의'가 그런 대체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의 마누라'에서 '우리의'도 마찬가지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Hornsby 1977; Wettstein 1981; Recanati 1986).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불완전 기술구에 대한 주류 견해는, 적어도 그것이 속성적으로 사용될 때, 발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에 의지하여 그것을 완전한 기술구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불완전 기술구가 러셀의 기술이론에 제기하는 문제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다 (Quine 1940; Vendler 1967; Grice 1981). 강진호 역시 화자가 '마누라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할 때, 불완전 기술구에 해당하는 '마누라'가 암묵적인 지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것의 지시체는 발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에 의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전술한 주류 견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에서 '우리의'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즉, '우리의 마누라'에서 '우리의'는 '마누라'가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의 지시체를 고정함에 있어 발화 맥락이 수행하는 의미론적 기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의 마누라'가 사용될 때에도 '마누라'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발화 맥락의 의미론적 기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의'는 단지 대화 맥락에 의해서 확정된 '마누라'의 지시체가 화자 가족의 구성원임을 확인해 주는 수식적 기능만을 한다는 강진호의 입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소유격의 의미론

지금까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강진호의 이론이 갖는 한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 사실 강진호의 이론이 갖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과 관련하여 강진호는 '우리 마누라'와 '우리의 마누라'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동의어 논제는 수용하지만 'x가 우리의 마누라이다'는 술어가 x를 공유하는 마누라 공유 공동체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보는 공동체 논제를 거부한다. 그런데 앞 절에서 우리는 강진호가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공동체 논제를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제시하지만 강진호의 대안적 분석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강진호가 왜 공동체 논제를 애초에 배격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강진호가 공동체 논제를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것이 아닐까?

강진호(pp. 161-2)는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공동체 논제를 비판하면서 소유격 관계가 반드시 소유 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논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강진호는 '톨스토이의 책'은 톨스토이가 소유한 책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저술한 책을, '철수의 기차'는 철수가 소유한 기차가 아니라 철수가 타고 갈 기차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어 소유격 조사로 알려져 있는 '의'에 관한 최근 언어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의'의 출현은 명사핵(head noun)에 선행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에게 거의 무차별적으로 허용된다 (안덕호 2012, p. 611-2). 가령 다음의 사례를 보라.

3. 기쁨의 순간
4. 영화배우와의 인터뷰
5. 미국으로부터의 소식
6. 미국으로의 여행

앞의 표현들에 의해서 예시되는 소유격 관계들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듯하다. 이로부터 안덕호는 '의'가 비록 '격조라'라고 불기는 있지만, 실제 그것의 출현이 그것이 부가된 표현들의 문법적 역할의 허가, 즉 그들의 격 허가(case licensing)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안덕호의 관찰은 소유격 조사 '의'를 포함하는 소유격 구문이 근거하는 소유격 관계가 반드시 소유 관계일 필요가 없고 그 조사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명사에 따라서, 또한, 동일한 소유격 구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일 수 있다는 강진호의 논점을 지지한다. 이러한 논점에 근거하여 강진호(p. 162)는 '소유격 'our'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구)와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표현은, 'our'가 가리키는 집단이 그 지칭된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그 집단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제안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통령(our president)'은 화자가 속하는 집단(e.g. 국가)의 한 구성원인 화자의 대통령을 가리키고, '우리의 마누라'는 화자가 속하는 집단(e.g. 가족)의 한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3절에서 필자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의 적'과 같이 강진호의 이론으로 그것의 기술적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소유격 구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소유격 구문들에서 '우리의'는 '[소유격 구문에 의해 지칭된] 그 사람이 ['우리'에 의해 지칭된] 그 집단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점에서 강진호의 이론이 대부분의 소유격 구문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주장을 틀렸다.

뿐만 아니라 강진호의 이론의 적용대상을 '우리의 마누라'에 한정하다 하더라도 강진호의 추론은 부당하다. 무엇보다, '마누라'와 같은 관계명사가 명사핵으로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에서 소유격 관계는 그 관계명사에 의해서 일의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유격을 연구하는 주요 언어

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갖는데, 강진호의 이론은 그런 언어학자들의 일치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먼저 관계명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보통명사 중에서 '마누라', '아버지', '선생님', '친구', '선배', '적'과 같은 관계명사(relational noun)는 '사람', '의자', '강아지', '건물', '책'과 같은 증명사(sortal noun)와 구분되는데, 그것은 전자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개체 x 가 아버지인 것은 x 가 어떤 다른 개체 y 와 부자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x 가 친구인 것은 x 가 어떤 다른 개체 y 와 친구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는 증명사의 경우와 다른데, 어떤 개체 x 에 증명사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 x 가 어떤 다른 개체와 맺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 관계명사의 경우에서처럼 본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⁷

파티(Partee 1983/1997)는 소유격에 대한 그녀의 선구적인 연구에서 이러한 증명사/관계명사의 구분이 그들이 명사핵으로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의 의미론에 중요한 차이를 유발한다고 제안하였다. 파티에 따르면, 관계명사가 명사핵으로 등장하는 소유격 구문의 경우 그 관계명사가 소유격 관계를 제공하는 반면에 증명사가 명사핵으로 등장하는 소유격 구문의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가 발화 맥락에 의해서 제공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관계명사이고 그것이 내포하는 관계는 부자관계이다. 이에 따라 파티는 'x의 아버지'라는 소유격 구문을 개체 y 가 만족할 때, x 와 y 의 관계는 '아버지'라는 관계명사에 의해서 제공되고, 그런 만큼 그 소유격 구문이 서술하는 소유격 관계는 언제나 부자관계이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책'은 관계명사가 아닌 증명사이기에 그것은 어떤 특정한 관계를 내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x의 책'이라는 소유격 구문을 개체 y 가 만족할 때, x 와 y 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개체 x 가 y 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y 의 저자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y 를 누군가로부터 잠시 대여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중 어느 관계가 'x의 책'이 서술하는 소유격 관계가 되는지는 맥락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그런 의미에서 파티는 'x의 책'이라는 소유격 구문이 '자유로운 관계 변항(free relation variable)'을 포함한다고 본다. 즉, 소유격 구문은 관계를 그 값으로 갖는 자유 변항 R 를 갖는데, 그 변항의 값은 소유격 구문의 발화 맥

⁷ 증명사와 관계명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Barker 2011), (Asmuth & Gentner 2005) 와 (Bruin & Scha 1988) 등을 참조하라.

락에 의해서 주어진다. 것이다.⁸

소유격 구문에 관한 이러한 파티의 견해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아무런 이견 없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얀슨과 비크너 (Jensen & Vikner 1994; Vikner & Jensen 2002)는 소유격 구문에 종명사가 나타날 경우 그것을 관계명사로 변환하는 강제 유형 변화(coerced type-shifting)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종명사가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 역시 관계명사가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근거로 그들은 명사핵이 종명사인지 아니면 관계명사인지에 따라서 소유격 구문이 달리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는 파티의 견해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종명사가 명사핵으로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에 대한 파티의 견해일 뿐 관계명사가 명사핵으로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에 대해서 그들은 파티와 전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표명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가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소유격 구문인 '우리의 마누라'는 그것의 명사핵으로 관계명사인 '마누라'를 갖기에,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소유격 구문의 분석에 관한 파티와 얀슨·비크너의 논쟁을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⁹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어떤 관계명사 N과 명사(구) NP가 있을 때, 'NP의 N(NP's N)'의 형식을 갖는 소유격 구문이 근거하는 소유격 관계는 관계명사 N에 의해서 일의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적어도 소유격 구문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는 소유격 구문이 근거하는 소유격 관계가 N뿐만 아니라 NP나 발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일 수 있다는 강진호의 논점이 적어도 N이 관계명사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강진호는 자신의 논점을 지지하기 위하여 '톨스토이의 책', '철수의 기차'와 같이 N이 종명사인 경우만을

⁸ 소유격 구문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파티는 소유격 구문을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관계명사가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과 종명사가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이 그 중의 두 유형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논의하지 않은 나머지 한 유형은 관계형용사가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Tom's favourite book'과 같은 표현이다. 이 표현이 내포하는 소유격 관계는 형용사 'favourite'에 의해 제공되는데, 그것은 <x는 y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Partee & Borschev 2000)을 참조하라.

⁹ (Barker 2011)는 소유격 구문의 분석에 관한 언어학자들의 최근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다.

고려한다. 이로부터 그는 모든 소유격 구문에서 소유격 관계가 NP나 발화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만, 앞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강진호는 N이 종명사인 소유격 구문에만 성립하는 명제를 N이 관계명사인 소유격 구문에서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강진호가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과 관련하여 공동체 논제를 비판하고 나아가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내놓은 논거가 소유격 구문에 대한 오도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논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진호는 '우리의 마누라'는 화자의 가족의 한 구성원인 화자의 마누라를 뜻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개체 y 가 마누라인 것은 y 가 어떤 다른 개체 x 와 부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마누라'는 부부관계를 내포하는 관계명사이다. 그에 따라서, 개체 y 가 'x의 마누라'라는 소유격 구문을 만족할 때, 그에 대응하는 소유격 관계는 x 와 y 사이의 부부관계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y 가 '우리의 마누라'가 y 를 속성적으로 가리킨다고 할 때, 그 소유격 구문이 근거하는 소유격 관계가 우리라는 집단과 y 사이의 부부관계임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우리의 마누라'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부관계의 한 관계항을 가리키는 의미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y 가 화자 가족의 한 구성원임을 긍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강진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확히 동일한 결론을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의 적'같은 소유격 구문에 대해서도 이끌어낼 수 있다. '담임 선생님'이나 '적' 모두 관계명사이고, 그런 점에서 그들을 명사핵으로 포함하는 소유격 구문의 경우, 그것이 근거하는 소유격 관계는 해당 명사핵에 의해서 일의적으로 결정된다. 개체 y 가 'x의 담임 선생님'라는 소유격 구문을 만족할 때, 그에 대응하는 소유격 관계는 x 와 y 사이의 사제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소유격 구문이 '우리'로 지칭되는 어떤 공동체와 사제관계를 맺는 어떤 개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적'이라는 관계명사가 내포하는 관계가 적대관계이기에, y 가 'x의 적'이라는 소유격 구문을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x 와 y 는 적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적'이 '우리'로 지칭되는 어떤 공동체와 적대관계를 갖는 어떤 개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논점이 있는데, 그것은 필자의 제안이 어떤 관계명사 N에 대하여 '우

리의 N'의 형태를 갖는 모든 소유격 구문에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마누라'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의 적'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그들은 모두 관계명사 N에 의해서 주어지는 소유격 관계 R에 근거한 소유격 구문으로서, '우리'로 지칭되는 공동체와 R의 관계를 갖는 개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달리 말해, 그들의 기술적 내용은 <우리와 R의 관계를 갖는 어떤 개체>인 것이다. 3절에서 필자는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이 '우리의 담임 선생님', '우리의 적'과 같은 소유격 구문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필자의 견해와 강진호의 견해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 지점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의 언어적 상식은 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필자 입장에서 어떤 명사가 관계명사인지 아닌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대통령'을 고려해 보자. 강진호는 '우리의 대통령(our president)'이란 소유격 구문이 오바마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은 오바마가 화자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 화자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에겐 이러한 강진호의 주장이 좀처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명사가 관계명사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이 늘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이 그런 사례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관계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은 언제나 어떤 국가 혹은 국민의 대통령을 뜻한다는 점에서 관계명사라는 것이다. 만일 그와 같다면, '대통령'을 포함하는 소유격 구문은 국가 혹은 국민과 그 국가 혹은 국민의 대통령 사이의 관계- 편의상, 지도자 관계라 부르자 -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소유격 구문은 '우리'로 표현되는 공동체와 대통령 사이의 지도자 관계에 근거하고, 이에 따라 그것이 <화자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 지도자 관계를 맺는 개체>라는 기술적 내용을 갖는다고 본다. 이는 그것이 <화자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 화자의 대통령>라는 기술적 내용을 갖는다고 보는 강진호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필자는 '우리의 대통령'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이 틀렸다고 본다.

물론,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관계명사라는 판단은 '마누라'나 '담임 선생님', '적'의 경우만큼 이견의 여지 없이 명약관화하지는 않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통령'에 대한 필자의 논증이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필자의 논증과 비교하여 다소 취약하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 이견

이 대두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본 논문의 핵심 주제어인 '마누라'가 관계명사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그런 만큼 그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이 틀렸다는 필자의 논변에 대해서는 필자는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다.

이전 절에서 필자는 '우리의 마누라'에서 '마누라'가 화자를 가리키는 지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강진호의 이론을 논박하였다. 그런데, 이번 절의 논의에 비추어 강진호의 이론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앞서 필자는 y 가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을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y 와 부부관계를 맺는 관계항을 지시하는 의미론적 역할을 한다고 논변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에 따르면 그 표현에서 '마누라'는 화자를 가리키는 지표적 요소를 숨기고 있고, 그에 따라 y 와 부부관계를 맺는 관계항은 화자이어야 한다. 이는 만일 이번 절에서의 필자의 논증이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가리키는 공동체와 화자 둘 모두가 y 와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매우 부조리한 결론을 강진호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우리가 강진호의 이론을 거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된다.

6. 결어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을 분석하면서 정대현은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서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이 속성적 용법이라는 입장이 부조리한 귀결을 갖는다는 근거에서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이 지칭적 용법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 마누라'가 그것이 사용되는 표준적 맥락에서 속성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정대현의 주장은 지당하다. 하지만, 그로부터 곧장 '우리 마누라'가 그것이 사용되는 표준적 맥락에서 지칭적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필자가 (최성호 2016)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동의어 논제와 공동체 논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 마누라'는 속성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칭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올바른 것이라면, 두 논제 중의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동의어 논제를 수용하고 공동체 논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마누라'의 퍼즐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강진호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논증하였다. 필자는 먼저 '우리 마

누라'가 그것이 사용되는 한국어의 표준적 맥락에서 속성적으로 사용된다는 강진호의 입론을 비판하였다. 물론, 그런 표준적 맥락에서 '우리 마누라'가 속성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지칭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은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론이 정립된 이후에나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누라'가 그것의 표준적 발화 맥락에서 지칭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유력한 근거가 있다고 논변하였다.

또한, '우리(의)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공동체 논제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내놓는 과정에서 강진호는 소유격 관계의 임의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강진호가 '마누라'와 같은 관계명사가 명사핵으로 나타나는 소유격 구문의 경우 소유격 관계가 그 관계명사에 의해서 일의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누라'에서 '우리(의)'가 대화 맥락에 의해서 확정된 '마누라'의 지시체가 화자 가족의 구성원임을 확인해 주는 수식적 기능만을 한다는 강진호의 입론은 '마누라'가 발화 맥락에 따라 화자의 아내, 청자의 아내 혹은 제 3자의 아내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상충한다. 이처럼 '우리 마누라'에 대한 강진호의 분석은 그것이 애초에 해결하려고 시도한 문제보다도 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초래한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 마누라'의 기술적 내용에 관한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안이 동의어 논제를 거부하면서 공동체 논제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그 두 논제 모두를 수용하는 정대현의 견해나 그 두 논제 중 동의어 논제를 수용하지만 공동체 논제에 반대하는 강진호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물론 그들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동의어 논제가 거짓이고 공동체 논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곧장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두 논제에 대한 필자의 제안은 별도의 독립적인 옹호 논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대현과 강진호가 '우리 마누라'의 의미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입장을 옹호함에도 동의어 논제, 즉, '우리 마누라'가 복수 일인칭 대명사('우리')와 관계명사('마누라')가 소유격 조사('의')로 연결된 형태를 갖는 소유격 구문에서 소유격 조사 '의'가 생략된 표현이라는 논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정대현과 강진호의 실패는 동의어 논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우리 마누라'의 표준적 용법에 대한 이론화를 모색할 합당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표면문법적으로 동의어 논제는 이건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듯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오류이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우리 마누라'에 대한 학문적 혼란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다.

참고문헌

- 강진호, 2010. 「'우리 마누라'의 의미」. 『철학적 분석』 21: 153-164.
- 안덕호, 2012. 「최소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유격: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 37: 607-621
- 정대현, 2009. 「"우리 마누라"의 문법」. 『철학적 분석』 20: 69-83.
- 최성호, 2016. 「'우리 마누라'와 험티덤티 문제」 『철학적 분석』 36: 143-167.
- Abbott, B., 2010. *Re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smuth, J. and Gentner, D., 2005. 'Context sensitivity of relational nouns,' In D. E. Johnson and T. Sanchez (eds.), *Proceedings of the 27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 Barker, C., 2011. 'Possessives and relational nouns,' In K. Heusinger, C. Maienborn, and P. Portner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ume 2.
- Bruin, J. and Scha, R., 1988, 'The interpretation of relational nouns,' *Proceeding ACL '88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n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Donnellan, K. S.,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281-304.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Hornsby, J., 1977. 'Singular terms in contexts of propositional attitude,' *Mind* 86: 31-48.
- Jensen, P. A. and Vikner, C., 1994. 'Lexical knowledge and the semantic analysis of Danish genitive constructions,' In S. L. Hansen and H. Wegener (eds.), *Topics in Knowledge-based NLP System*. Copenhagen: Samfundslitteratur.
- Kaplan, D. 1978. 'Dthat'.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Partee, B. H., 1983. 'Uniformity vs. versatility: the genitive, a case study,' In J. Benthem and A. Meulen (eds.), *The Handbook of Logic and Language*. Amsterdam: Elsevier.
- _____, 2000. 'Possessives, favorite, and coercion,' In A. Riehl and R. Daly (eds.), *Proceedings of*

- ESCOL99*.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 Quine, W. V., 1940. *Mathematical Log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canati, F., 1986. 'Contextual depend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ean Society* 87: 57-73.
- Strawson, P. F., 1950. 'On referring,' *Mind* 59: 320-344. Reprinted in Strawson, P. F., 1971. *Logico-Linguistic Papers*. London: Methuen.
- Vendler, Z., 1967. 'Singular terms,' In his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Vikner, C. and Jensen P. A., 2002. 'A semantic analysis of the English genitive: interaction of lexical and formal semantics,' *Studia Linguistica* 56: 191-226.
- Wettstein, H. 1981. 'Demonstrative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Studies* 40: 241-257.